

경전선 폐선부지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위 "대통합 계기되길"

경전선 폐선부지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경전선 등의 폐선부지를 오는 2017년까지 공원장이나 야외카페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계획안에는 경전선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선부지 전체의 활용 방안과 관련 오는 4월께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용역의 핵심은 경전선 폐선부지의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여부가 될 예정이다. 전체 경전선의 폐선부지 면적은 축구장 2200개에 해당하는 1200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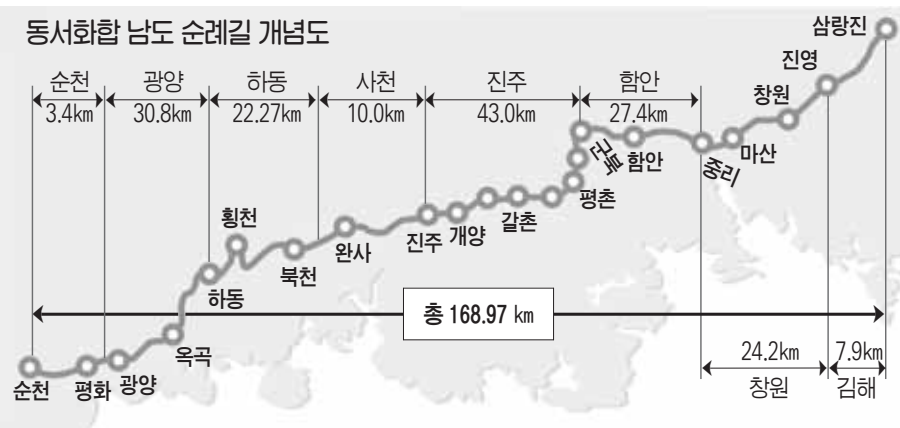
해야 할 문제"라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부지 무상 제공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별 조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보고사항인 만큼 국토부가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중에서는 여주시, 서울시 마포구, 부산시 등이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남과 경남의 8개 시·군을 지역범위로 설정해 동서통합지대 5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남도순례길 조성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추진위원회(전남 대표 강용재·경남 대표 허경도)는 25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동서통합을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수용됐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계획한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경전선 부지가 녹색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역사문화 벨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추진위는 순천에서 김해 삼랑진에 이르는 경전선 폐선구간 168.97km를 지자체별로 제각각 개발하지

말고 새로운 생태·레저·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 명물로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추진위는 지난해 말 진주시청에서 경전선이 지나는 영호남 8개 시·군의 단체장과 추진위원회 참여한 가운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5일 광주시 남구 CGI센터에서 열린 '카일 쿠퍼 아카데미' 헌관식에서 은주LEE 미국 프롤로그 필름스 부사장(왼쪽부터), 카일 쿠퍼 프롤로그 필름스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김정중 바다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용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업체, 카일 쿠퍼와

브라질 월드컵 영상 제작

타이틀 시퀀스 분야의 거장인 카일 쿠퍼(Kyle cooper)와 광주업체가 협력해 올 6월 열리는 브라질월드컵 홍보 영상을 만든다. 카일 쿠퍼는 또 광주에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픈닝 타이틀 제작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도 세우기로 했다.

미국 프롤로그 필름스 대표이기도 한 카일 쿠퍼는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라질 월드컵 홍보 방송용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오픈닝 영상은 3D로 제작되는데 이 부분을 광주업체(바다엔터테인먼트)가 맡게 될 것이며, 향후 할리우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일 쿠퍼는 바다엔터테인먼트와 25만달러 규모의 브라질 월드컵 영상 콘텐츠 제작 물량 계약을 체결했다. 카일 쿠퍼는 또 광주에 오픈닝 타이틀 제작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도 세우기로 했다.

아카데미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카일 쿠퍼가 대표로 있는 미국 프롤로그 필름스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광주와 서울 2곳에서 4월 중 개강해 32주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700만원으로, 광주에서 교육받을 경우 광주시와 문광부가 일부를 지원한다.

프롤로그사는 세계적인 오픈닝 타이틀 제작기술과 VFX(특수효과), CGI(컴퓨터 그래픽이미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영화 '세븐' 등 150여 편 이상의 타이틀 시퀀스를 제작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승의 산행을 끝낸, 오랜 친구 성부야. 생오지 우리 집 마당에 노랗게 핀 복수초와 남보랏빛 코딱지꽃을 보면서 너의 시 '봄'을 읊어본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앓았을 때에도 너는 온다"고 노래했듯이, 내가 없는 지상에도 봄은 여전히 따스한 햇살 앞세우고 해탈하며 쉬엄쉬엄 오고 있구나.

너를 보낸 후, 나는 시간은 속도가 아니고 머무름이며, 시간은 흐름이 아니고 축적이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다. 28년째 너에 대한 기억들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머물러 있고, 그리움의 축적으로 너의 존재는 내 안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어젯밤 너의 2주기(二週忌)를 맞아 추모하는 글을 쓰느라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너를 보듯 무등산을 보기 위해 새벽에 찬바람 맞으며 뒷산에 올랐다. 소나무 숲길을 걸다가 울컥 솟구치는

찾은 후에야 다시 시로 돌아왔다. 결국 이후 내가 다시 시를 쓰게 한 것도 산이었다. 산이 네 시를 풀어 주었고 네 시가 산을 감싸 안아 준 것이었다.

아, 성부야, 이제 영원히 산을 품게 되었으니 마음이 편안하나? 이제 네가 산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나? 산으로 돌아와 그리운 어머니와 김현승 선생님 품에 안기니 포근하나?

나는 너를 보내고 우리 시대 한 시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광복과 6·25전쟁, 4·19와 5·16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항쟁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의식이 짙었던 한 시인의 70년 생애를 돌아본다.

너는 분명 영혼이 메마른 한 시대, 어둠 속에 반짝이던 별이었다. 아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별기 꽃이었다. 시인은 별이 되어 반짝이고 꽃으로 피어날 수 있으니, 어쩌면 시인에게 생화학적 생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도 모

봄의 시인 이성부에게

그리움 주체할 수 없어, 57년 동안 불러왔던 네 이름 다시 불러 보았으나 대답은 없고 찬바람만이 헛헛한 내 마음 아프게 휘저어 뿐이더구나.

나는 네가 떠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순태야, 나 지금 무등산에 와 있다. 어디서 만날까." 하고 전화를 할 것만 같다.

무등산을 너무 사랑해서,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수백 번을 오르내렸다는 너는, 무등산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했다. 너는 어떤 시인보다 무등산을 사랑했었지. 너의 시 '무등산'엔 너 자신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시대정신이 담겨 있고.

80년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너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절망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확대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무등산'을 썼지.

"나는 고향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탄하던 너는 언어에 대한 불신과 분노 때문에, 일체의 시 창작을 중단하기까지 하지 않았다.

너는 고통을 이겨내려고 시를 떠나 산으로 갔지. 너의 오랜 산행은 구도의 길 찾기와 같은 고행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산에서 새로운 자아와 희망을

찾았다. 봄이 오면 꽃이 다시 피듯, 시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시인의 죽음은 시에서 태어나 다시 시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서 태양은 뜨고 지며, 꽃들은 다시 피고 지고, 시간은 이승의 한복판을 강물처럼 덧없이 흐르지만, 너는 영원한 시간 속에 별과 꽃의 영혼으로 머물며, 강물 위에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이 되고 있음을 나는 알 것 같구나.

그리고 보니 너는 사라진 것이 아니더구나. 다만, 이승의 산행을 끝냈을 뿐이더구나. 비록 너는 갔지만 내가 남긴 추억과 정신적 소산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단다.

보고 싶고 그리운 성부야. 너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들이 50여 년 전 시인의 꿈을 키웠던 모교 광주교정에 너의 시 '무등산'을 새긴 시비를 세웠다.

모두들 너의 시를 읽고 그리움을 쓸어 산으로 갔지. 너의 오랜 산행은 구도의 길 찾기와 같은 고행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소설가>

정가 라운지

임내현 "철도공단, 성능미달 절연장치 승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전기절연 장치를 공급 승인해 주고 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25일 "지난 2013년 9월 경부고속철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 공사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 분야의 전기저항 성능이 미달한 성능시험성적서를 관련 부품 업체에서 제출했음에도 공단에서는 공급인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시공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홍, 공기업 사장 급여 규제법안 발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25일 공기업 사장의 급여를 해당 부처 장관 급여의 120% 이내로 정하고, 임직원의 급여 인상률을 당해연도 국가공무원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공기업은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도 누리면서, 동시에 민간 대기업의 고액 연봉도 함께 누리는 '신의 직장'으로 국민 눈에 비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택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 의원 안과·이비인후과 1164.9㎡ (≈352.38평) 치과·피부성형과 365.58㎡
4층	사무실 / 학원 216.87㎡ / 582.45㎡
5층	아스터리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公 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 등록완료

단비플라워

축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